

Hyesoo Park

2



- 1 좌: 박혜수, <설문 '당신의 우리는 누구인가' - 모집단 중산층 300명의 답변>, 2019, 설문, 가변 크기. 《올해의 작가상 2019》 전시 전경.
우: 박혜수, <No Middle Ground>, 2019, 구조물, 텍스트, 900 × 900 × 350 cm. 《올해의 작가상 2019》 전시 전경.
- 2 좌: 박혜수, <(주)퍼펙트 패밀리>, 2019, 월택스트, 그래픽, 트라이비전, 홈페이지, 브로슈어, 가변 크기. 디자인: 윤현학, 일러스트: 최보연. 《올해의 작가상 2019》 전시 전경.
우: 박혜수, <후손들에게>, 2019, 단채널 비디오, 40분, 공동연출: 이원영. 《올해의 작가상 2019》 전시 전경.
- 3 박혜수, <토론극장: 우리_들>, 2019, 관객참여형 렉처 퍼포먼스, 공동기획: 이경미. 《올해의 작가상 2019》 전시 전경.

1



3





박혜수, <(주)퍼펙트패밀리-휴먼 렌탈 서비스>, 2022, 관객 참여 퍼포먼스, 지시문. 2022 파라다이스 아트랩, 미디어스코프 사진 제공.



박혜수, <(주)퍼펙트패밀리-메타 파라다이스(본사)>, 2022, 메타버스. 앱: Kuntra, 메타버스 제작: 티슈오피스.

이수정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박혜수는 2000년부터 시간, 관계, 보통, 꿈 등 보편적인 개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개인의 경험 간의 차이에 주목해 왔다. 온/오프라인 설문 및 전시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설치 및 퍼포먼스, 토론회 등으로 공유해 왔다. 작가가 던진 질문은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사라졌습니까?”(《What’s missing》(2008-)), “당신은 어떤 꿈을 포기했나요?”(《당신이 버린 꿈》(2009-2017)), “우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우리가 모르는 우리》(2019-)) 등 평범한 것들이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평범하고 안정된 삶을 강요하는 사회적 시선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다는 점이다.

작가는 국내외 여러 전시와 아오모리 동시대예술센터(2009), 안 반 에이크 아카데미(2014-2015) 등 국제 레지던시에서 타자로서 공동체와 개인 간 관계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경험하였다. 사회와 개인, 공동체의 보호와 간섭 등의 복잡성을 더 입체적으로 관찰하게 된 한편 가까운 가족, 협업하던 동료의 죽음을 경험하며 꿈과 현실, 삶과 죽음, 상실과 애도에 대한 작가의 시선도 깊어져 왔다.

《올해의 작가상 2019》를 준비하며 박혜수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가족 지향적 삶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기에 ‘우리’에 대한 답변은 대부분 가족에 대한 것이었으며 자연히 이번 작업은 가족이 그 중심에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작가는 ‘우리/우리가 아닌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또 《토론극장》을 통해 가족 내에서의 갈등에 대해 관객과 함께 토론하는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한쪽에서는 《퍼펙트 패밀리》라는 가상의 회사와 세부 서비스 영역을 광고했다. 엄마, 아빠, 아들과 딸로 구성된 4인 가족의 행복한 그림을 보여주면서, 완벽한 가족의 상이 필요한 순간에 제공할 수 있는 각종 서비스를 제시했다. 박혜수의 《퍼펙트 패밀리》는 A. 역할 대행 B. 전화 대행 서비스 C. 상황극 서비스 D. 비즈니스 업무 대행 E. 웰 다잉 서비스 등을 제안한다. 이 서비스들은 가족의 해체 가운데에도 전통적 가족상이 요구되는 변동기의 상황을 담고 있는 동시에, 감정적인 소모를 회피하는 감정의 외주화라는 사회적 현상,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구의 대두로 인한 장례문화의 변화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담고 있다.

작가가 《올해의 작가상 2019》에서 《퍼펙트 패밀리》의 개념을 소개했다면, 《휴먼 렌탈 서비스》(2022)는 실제 호텔 투숙객들에게 서비스를 소개하고 메타버스 내에서도 서비스를 구현하여 가상과 실재의 경계를 적극적으로 해체했다. 상업 쇼케이스가 이뤄지는 파라다이스 호텔 광장에 《퍼펙트 패밀리》 쇼케이스가 설치되고 메타버스 상에 관련 서비스가 구현되자, 호텔 투숙객 중 실제로 존재하는 서비스로 오인하여 신청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후손들에게〉(2019)는 무연고 사망자들의 죽음과 관련된 장소와 유품정리사, 장례지도사, 사회 운동가의 인터뷰를 교차편집으로 보여준다. 국가뿐 아니라 과거 개인의 든든한 보호막으로 기능했던 가족의 해체 이후, 국가에게도 가족에게도 버려진 채 죽음을 맞이한 개인의 모습은 존엄한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고독한 죽음, 죽음과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는 상실과 애도라는 주제에 대한 작가의 관심사를 통해 갑작스러운 수많은 죽음을 직면했던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애도 프로젝트〉(2020)로 발전되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격리 중에 사망한 환자의 가족들은 임종을 지키지 못하거나 코로나 환자에 대한 따가운 시선 속에서 죄인 취급을 받는 이중의 고통에 시달렸다. 박혜수는 한 지역신문과 함께 갑작스럽게 가족을 보내야 했던 사연을 수집하여 그림으로 그려 지역 신문에 내보내는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평생 신문에 이름 석 자 나가본 적 없었을 고인과 그 가족들은 고인의 생전 이야기가 담긴 그림을 보면서 뒤늦은 작별 인사를 하고 주위에 소식을 알리고 위로를 받았다.

해소되지 못한 감정은 시한폭탄처럼 우리를 위협한다. 2022년 지금, 박혜수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대한 두려움, 즉 노노포비아이다. 상처받지 않도록 혼자만의 삶을 택하고, 대신 TV 속 인물들의 사랑을 관찰하면서 배달 음식을 먹는다. 소규모공업이 이뤄지는 곳에서 만난 60-70대의 노동자들의 첫사랑 이야기를 채집한 〈기쁜 우리 젊은 날〉(2022), 실연에 대한 물품을 수집한 〈실연수집〉(2013-2022) 등의 작품은 감정이 사라져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박혜수는 계속하여 서로 성격이 다른 공동체를 찾고 질문을 던지며 분석한다. 온라인 설문 링크, 전시실의 종이 설문지, 격렬한 토론의 장, 메타버스 내의 공간 등 이 모든 것은 서로 다른 공간에서 이루어지지만, 그의 예술관은 그 전체를 아우른다. 그에게 예술이란 이번에 출간된 책 제목처럼 ‘묻지 못한 질문’을 던지고 ‘듣지 못한 대답’을 귀 기울여 듣는 과정이며, 그를 통해 삶을 더 삼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학력

2000

·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조소과 석사 졸업, 서울

1997

·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조소과 학사 졸업, 서울

주요 개인전

2022

· 《모토포비아: 외로움 공포증》, 아트센터 예술의 시간, 서울

2020

· 《가까이, 조금 멀리 있어줘》, 교보아트스페이스, 서울

2016

· 《Now Here is Nowhere》, 송은아트스페이스, 서울

2013

· 《보통의 정의》, 송은아트스페이스, 서울

2011

· 《꿈의 먼지》, 금호미술관, 서울; 흥은예술창작촌, 서울
· 《무엇이 사라지고 있는가》, 포스코미술관, 서울

2009

· 《Project Dialogue—Archive》, 소마드로잉센터, 서울

주요 단체전

2022

· 《나나의 기억》,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서울
· 《파라다이스 아트랩》, 파라다이스시티, 인천
· 《시적 소장품》,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하이브리드 바톤: 비정형의 향연》, 갤러리바톤, 서울

2021

· 《이토록 아름다운》,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 《Fortune Telling: 운명상담소》, 일민미술관, 서울

2020

· 《새일꾼 1948-2020》, 일민미술관, 서울
· 《현실이상》, 백남준아트센터, 용인

2019

· 《올해의 작가상 2019》,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서울
· 《Viborg Animation Festival》, NYT Viborg Museum, 비보르
· 《마음현상: 나와 마주보기》, 부산현대미술관, 부산

2018

· 《SCENE & UNSEEN》, Castle d’Aspremont-Lynden, 아우트레켄
· 《Re: Sense》, 코리아나미술관, 서울
· 《일상의 예술: 오브제》, 뮤지엄 산, 원주

· 《생생화화 2018: 헤어날 수 없는》, 경기도미술관, 안산

2017

· 《경계 155》,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Do it 2017, 서울》, 일민미술관, 서울

2016

· 《어느 곳도 아닌 이곳》, 소마미술관, 서울
· 《Do Boomerangs always come back?》, Castle d’Aspremont-Lynden, 아우트레켄
· 《Artifariti 2016_Cicus》, Elbutron, 세비아

2015

· 《The Future is Now》, Friche la Belle de Mai, 마르세유
· 《Future Love Nature》, ZZP Fabriek, 마스트리히트
· 《Winter Open Studio》, Gasworks Studio, 런던
· 《Open Studio》, Jan van Eyck Academie, 마스트리히트
· 《APMAP 2015 Yongin—Researcher’s Way》,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용인

2014

· 《미래는 지금이다》, 로마 국립 21세기 현대미술관, 로마

2013

· 《Love Impossible》, 서울대학교미술관, 서울

2012

· 《No. 45 Kumho Young Artist》, 금호미술관, 서울

2011

· 《SeMA 2010: 이미지의 틈》,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또 다른 여름》, 성곡미술관, 서울

2010

· 《신진기예》, 토탈미술관, 서울
· 《조각적인 것에 대한 저항》,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PROPOSE 7 vol.5》, 금호미술관, 서울

주요 수상

2014

· 제13회 송은미술대상전 대상

2010

· 금호영아티스트 선정

주요 소장처

· 국립현대미술관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 부산현대미술관
· 송은문화재단
· 서울시립미술관
· 수원시립미술관